

濟州 未記錄 歸化植物(Ⅱ)

양영환* · 박수현¹⁾ · 김지현²⁾ · 김문홍³⁾

민속자연사박물관, ¹⁾국립수목원, ²⁾국립환경연구원, ³⁾제주대학교 생물학과

Unrecorded naturalized plants in Jeju(Ⅱ)

Yang Young Hoan*, Soo-Hyun Park¹⁾, Ji-Hyun Kil²⁾ and Moon-Hong Kim³⁾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Jeju, 690-834, ¹⁾Department of National Arboretum, Gyonggi, 487-820, ²⁾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cheon, 404-170, ³⁾Department of Biology, Natural Sciences College,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ABSTRACT

Five naturalized species of taxa in Jeju such as *Solanum ciliatum*, *Rubus fruticosus*, *Lepidium bonariense*, *Rudbeckia hirta*, *Solanum photeinocarpum* have been found and given the Korea names. Among those species, four species such as *Solanum ciliatum*, *Rubus fruticosus*, *Lepidium bonariense*, *Rudbeckia hirta*, *Solanum photeinocarpum*. are naturalized in Korea but have not been reported yet and *Rudbeckia hirta* has been cultivated as a garden plant on the mainland Korea but it is found in the natural environment on Jeju island in Korea. And so we report here that *Rudbeckia hirta* is a naturalized species.

Key words : naturalized species, *Solanum ciliatum*, *Rubus fruticosus*, *Lepidium bonariense*, *Rudbeckia hirta*, *Solanum photeinocarpum*

서 언

제주도에는 관속식물 1,841종류가 자연상태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며 자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공항을 통하여 외국인이 직접 들어오며, 그 외에 국내의 관광객의 옷이나 화물, 목초지의 종자수입 등으로 외국의 식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수 들어오고 있다. 필자들은 제주도에서 미기록 한국귀화식물을 발견하고 이들의 귀화를 확인하여 이를 보고한다. 즉. 왕도깨비가지(*Solanum ciliatum* Lam.), 서양산딸기(*Rubus fruticosus* L.), 국화잎다닥냉이

(*Lepidium bonariense* L.), 수잔루드베키아(*Rudbeckia hirta* L.), 민까마중(*Solanum photeinocarpum* Nakamura et Odashim)의 5종이다. 그림을 그린 확정표본은 모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2000년 6월 25일부터 2001년 6월 28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주도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귀화식물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였다. 귀화식물의 동정은 박(1995)의 한국귀화

식물원색도감, Osada(1997)의 일본원색귀화식물도감을 이용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새로 제주도의 귀화가 확인된 5종에 한국명을 신칭 하였다.

종의 기재

제주도의 인가 근처, 길가, 목장지대 등의 각 지역별로 귀화식물의 종류수와 양을 조사하던 중 제주도 미기록이면서 한국미기록귀화식물 5종이 발견되어 이 식물들을 동정하고 귀화를 확인한 후 한국명을 신칭하였다. 2000년 6월 26일에 스잔루드베키아, 2000년 10월 5일에 왕도깨비가지, 2001년 5월 7일에 국화잎다닥냉이, 2001년 6월 26일에 서양산딸기, 2001년 6월 28일에 민까마중을 확인하였다. 각 식물에 대한 종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1. *Solanum ciliatum* Lam., Illustr. 2: 21(1794).

국명: 왕도깨비가지(신칭) (Fig. 1).

가지과 까마중속(*Solanum* Linne)에 속하는 식물이다. 여러해살이풀로서 줄기는 직립하거나 비스듬히 자라고, 높이 30~100cm,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密生하고, 어린 부분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다. 잎은 卵狀橢圓形으로 길이 15cm까지 자라고 羽狀淺裂되며 하안 털이 돌아있고, 양면 맥 위에 드문드문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꽃은 5~9월에 피며 마디사이에서 꽃자루가 나와 3~4개의 꽃이 달린다. 화관의 지름은 7~10mm, 끝이 5열되며 裂片의 끝은 뾰족하고 백색이며 화관의 중앙부는 담황색이고 털이 없다. 꽃받침도 5장으로 나뉘어져있고, 화병과 함께 가시가 촘촘히 있다. 1개의 암술과 5개의 수술이 있다. 열매는 球形이고 직경 2~4cm정도이고, 처음에는 백색으로 녹색의 세로 줄무늬가 있지만 익으면 수분이 빠져 적색으로 변하면서 씨가 많이 맺힌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이고, 유럽과 일본에도 귀화되었다(Osada, 1997). 필자는 2000년 10월 5일 제주도 성이시돌목장 및 동광검문소 근처 빈터에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명은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와 비슷하고 가시와 열매 그리고 잎이 커

서 “왕도깨비가지”로 新稱하였다.

2. *Rubus fruticosus* L., Sp. Pl. 493(1753).

국명: 서양산딸기(신칭) (Fig. 2).

장미과 산딸기속(*Rubus* Linne)에 속하는 식물이다. 낙엽관목으로 가지 전체에 가시가 있고, 어린 가지에는 黃褐色의 부드러운 털이 있으나 점차 털이 없어진다. 잎은 3~5개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고 잎 뒷면에는 솜털이 밀생하여 백색을 띤다. 꽃은 6월에 피며 가지 끝에 圓錐形으로 모여서 달린다. 꽃잎은 淡紅色, 수술은 많고, 암술은 圓錐形의 花床위에 많이 모여 있다. 꽃이 진 후에 검은색 球形의 액과가 모여서 열매가 된다. 각각의 액과에는 1개의 종자가 있고, 익은 후에도 花床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후에 남아있는 꽃받침과 함께 떨어진다.

유럽이 원산지며, 최근 일본에서는 재배하고 있다(Osada, 1997). 필자는 2001년 6월 26일에 제주도 오등동 오라골프장 옆 도로변에 자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명은 산딸기와 잎이 비슷하고 유럽이 원산지라서 ‘서양산딸기’라고 新稱하였다.

3. *Lepidium bonariense* L., Sp. Pl. 645(1753).

국명: 국화잎다닥냉이(신칭) (Fig. 3).

십자화과 다닥냉이속(*Lepidium* Linne)에 속하는 식물이다. 1-2년생풀이며 줄기는 높이 30-50cm이다. 잎은 1-2회 우상으로 분열하며 裂片의 폭은 2-3mm이고 줄기와 함께 드문드문 긴 털이 있다. 꽃은 아주 작고, 꽃받침은 녹색 卵形이며 길이는 1mm정도이다. 꽃잎은 가늘며, 백색이고 꽃받침보다 좀 짧다. 열매자루는 2-4mm, 열매는 둥글고 편평하며 길이 2-3mm, 상반부 양쪽에 날개 모양의 부속체가 있고 끝부분은 넓고 얇게 패여 있으며, 그 속에 잔존 화주가 있다. 열매에는 2개의 종자가 들어있고, 종자는 길이 1.5mm, 적갈색이며 끝에서 한쪽으로만 백색 반투명 날개가 있다. 꽃은 봄에 핀다.

남아메리카 원산지이며, 유럽(Stace, 1991)과 일본(Osada, 1997)에 귀화되었다. 필자는 2001년 5월 7일

제주 북제주 한경면 해안 절부암 근처에서 발견하였다. 잎이 국화잎처럼 갈라져서 국명을 '국화잎다닥냉이'로 新稱하였다.

4. *Rudbeckia hirta* L., SP. Pl. 907(1753).

국명: 수잔루드베키아 (Fig. 4).

국화과 루드베키아속(*Rudbeckia* Linne) 식물로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30~70cm로 곧게 자라며 윗부분에서 약간 가지를 치고 거친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기이며 줄기 아래부분에 있는 잎은 잎자루가 7cm까지 자라며, 타원형이고 기부가 좁아지면서 잎자루에 이르고 끝은 뾰족하며 약간의 거치를 가진다. 잎의 앞면과 뒷면에 거친 흰털이 있고, 줄기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며 잎자루가 없어진다. 꽃은 6~10월경에 피고, 지름 4-6cm이다. 설상화는 8~14개정도이고 등황색이며 無性花이며 중심화는 통상화로 흑자색을 띠고 양성화이다. 열매는 8~11월에 흑색으로 익으며 관모는 없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다(Osada, 1997). 원예종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필자는 2000년 6월 26일 제주 서부산업도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이시들목장근처에서 일출되어 야생화된 것을 발견하였다. 국명은 원예종으로 불리우는 한국자원식물명총람(강과 심, 1997)에 기재된 명칭을 이용하였다.

5. *Solanum photeinocarpum* Nakamura et Odashima, Journ. Soc. Trop. Agric. Taiwan, 8: 54(1936)

국명: 민까마중(신칭) (Fig. 5).

가지과 까마중속(*Solanum* Linne)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높이는 30~60cm, 짧은 털이 드물게 있다. 까마중(*Solanum nigrum*)과 비슷하며 잎은 얇고 녹색, 양쪽 끝이 좁고 뾰족하며 일반적으로 거치가 없으나, 드물게 거치가 생기기도한다. 꽃은 6~7월에 피고, 꽃자루 끝에 4~7개의 꽃이 총생하고, 드물게는 한 개의 꽃이 떨어져 피는 경우가 있지만, 그 꽃의 꽃자루 중간에는 관절이 있다. 화관은 지름 3~5mm정도이고 백색이며, 열매는 직경 5~8mm정도

이고 익으면 광택이 있다. 종자는 구형으로 흑색으로 익으며 지름 1mm정도이다.

남아메리카 원산이며, 지리적으로 일본과, 대만, 중국의 남부에 분포하고 있다(Osada, 1997). 필자는 2001년 6월 28일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해안에서 확인하였다. 식물명칭은 까마중과 비슷한 외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민까마중'이라고 新稱하였다.

적 요

제주 미기록 귀화식물 5종, 즉 왕도깨비가지(*Solanum ciliatum* Lam.), 서양산딸기(*Rubus fruticosus* L.), 국화잎다닥냉이(*Lepidium bonariense* L.), 수잔루드베키아(*Rudbeckia hirta* L.), 민까마중(*Solanum photeinocarpum* Nakamura et Odashima)이 확인되어 국명을 신칭하여 보고한다. 왕도깨비가지, 서양산딸기, 국화잎다닥냉이. 민까마중의 4종은 한국미기록 귀화식물이고 수잔루드베키아는 원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나 제주도에서는 자연상태로 일출되어 귀화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귀화식물로 보고하는 바이다.

인 용 문 헌

Osada, T. 1997. In Colored Illustrations of Naturalized Plant of Japan. Hoikusha, Osaka. p.425
 Stace, C. 1991. Now Flora of British Island. Cambridge Univ. Press. Pp. 1226.
 강병화, 심상인. 1997. 한국자원식물명총람.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818.
 박수현. 1995. 한국귀화식물원색도감. 一潮閣. 서울 p236.
 유용규. 2001. 조선식물지 8권. 과학기술출판사. p329
 이창복. 1979.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서울. p. 119.

(접수일 2001.11.29)

(수락일 2002. 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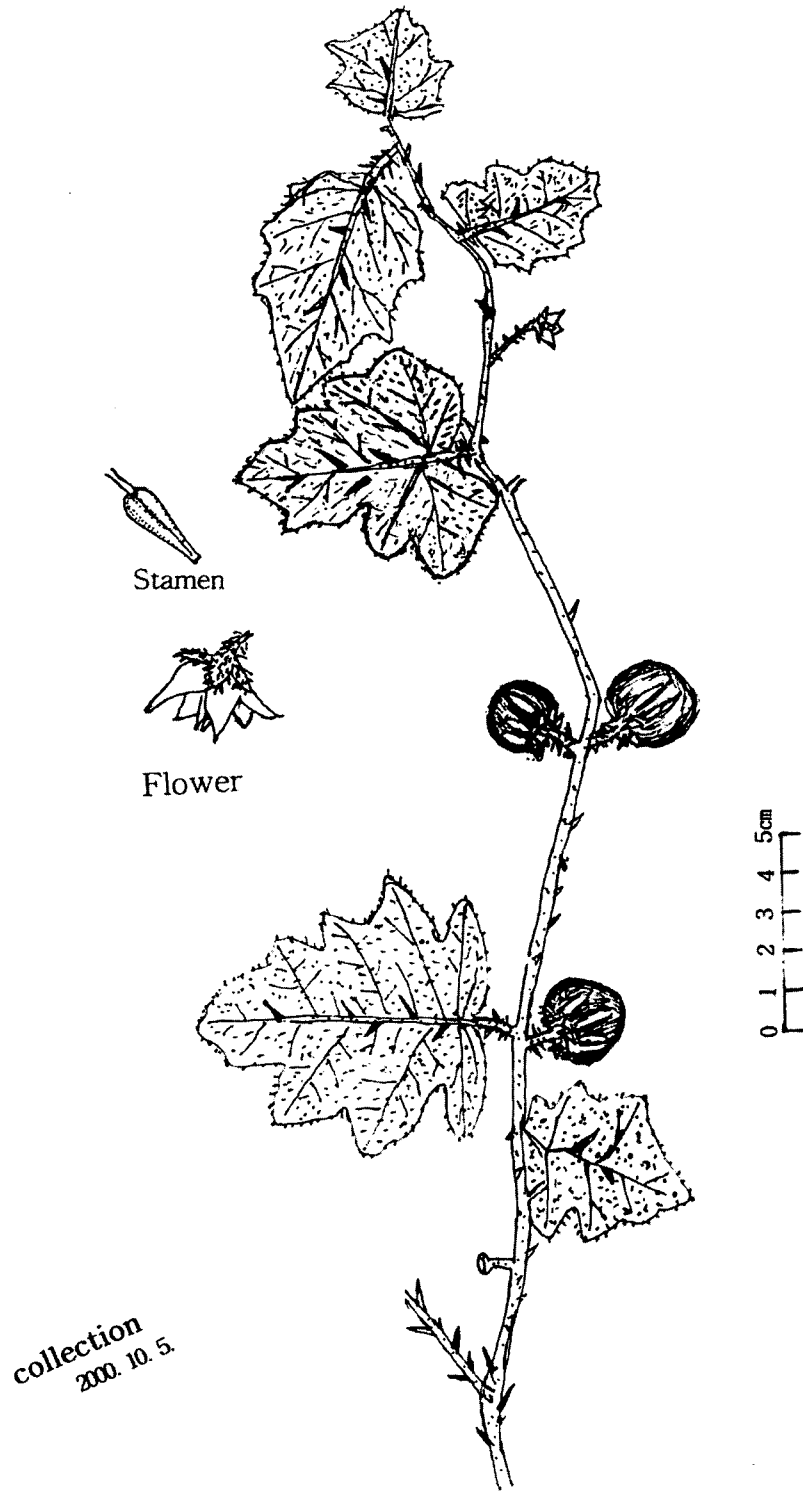


Fig.1. *Salanum ciliatum* L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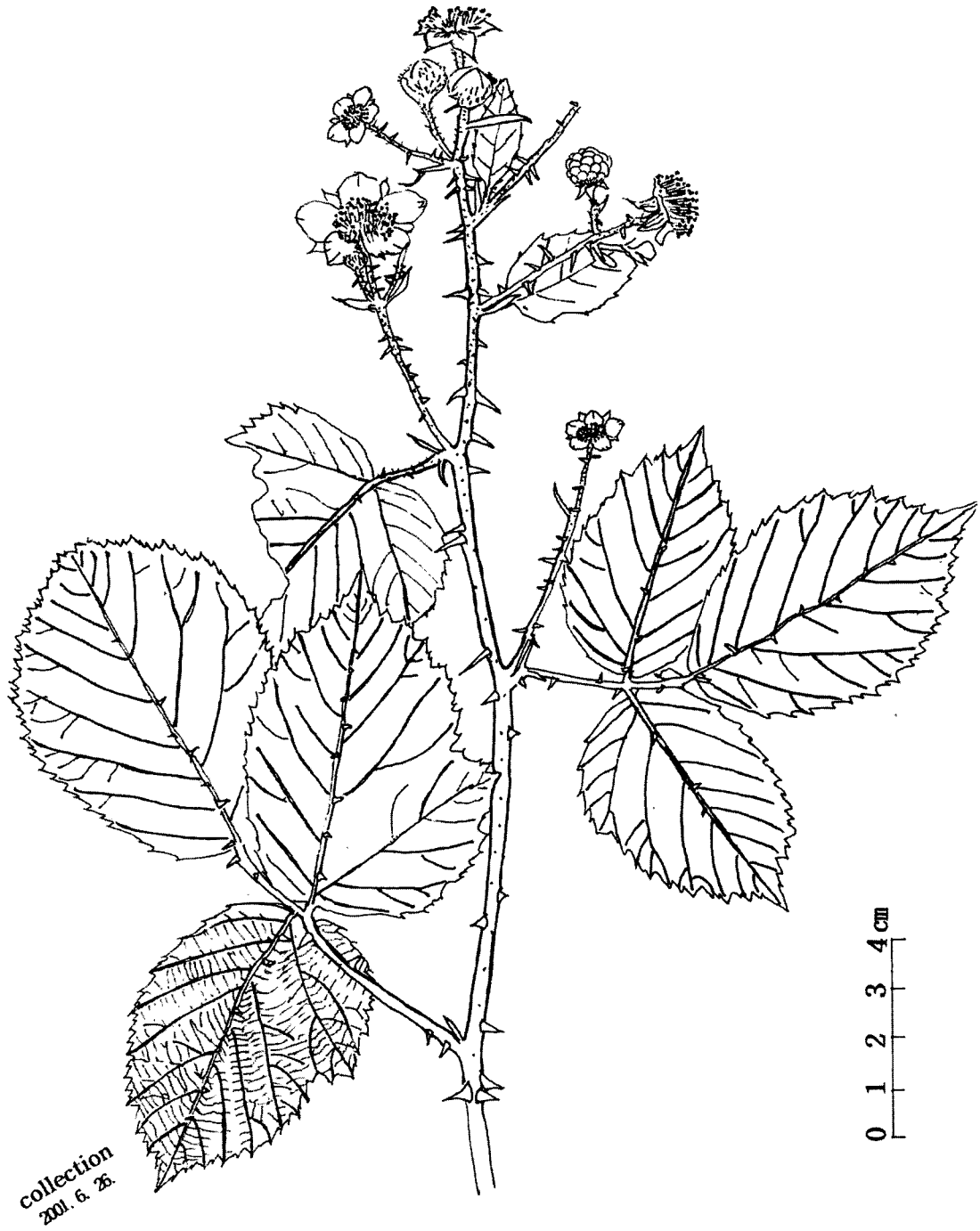


Fig.2. *Rubus fruticosus*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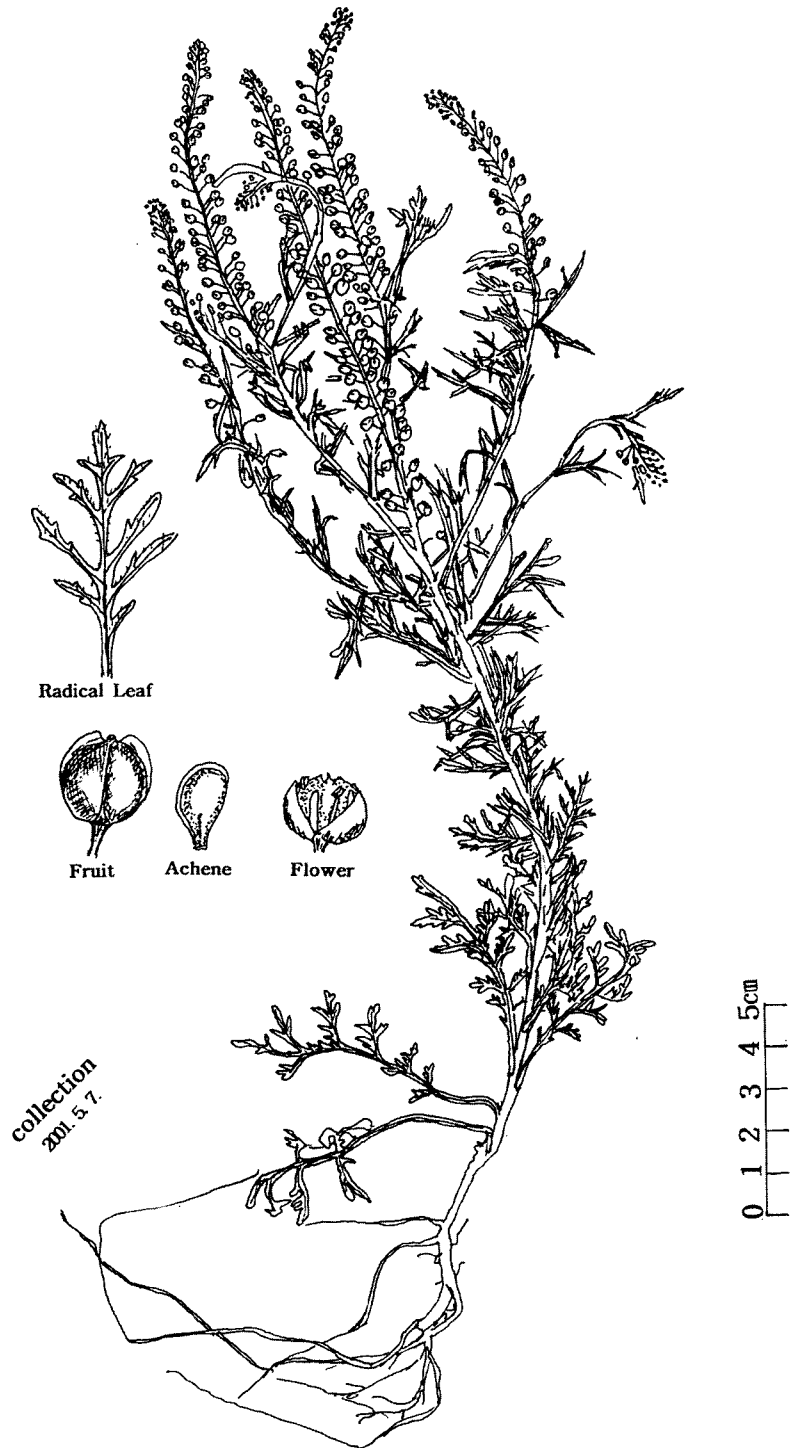


Fig.3. *Lepidium bonariense*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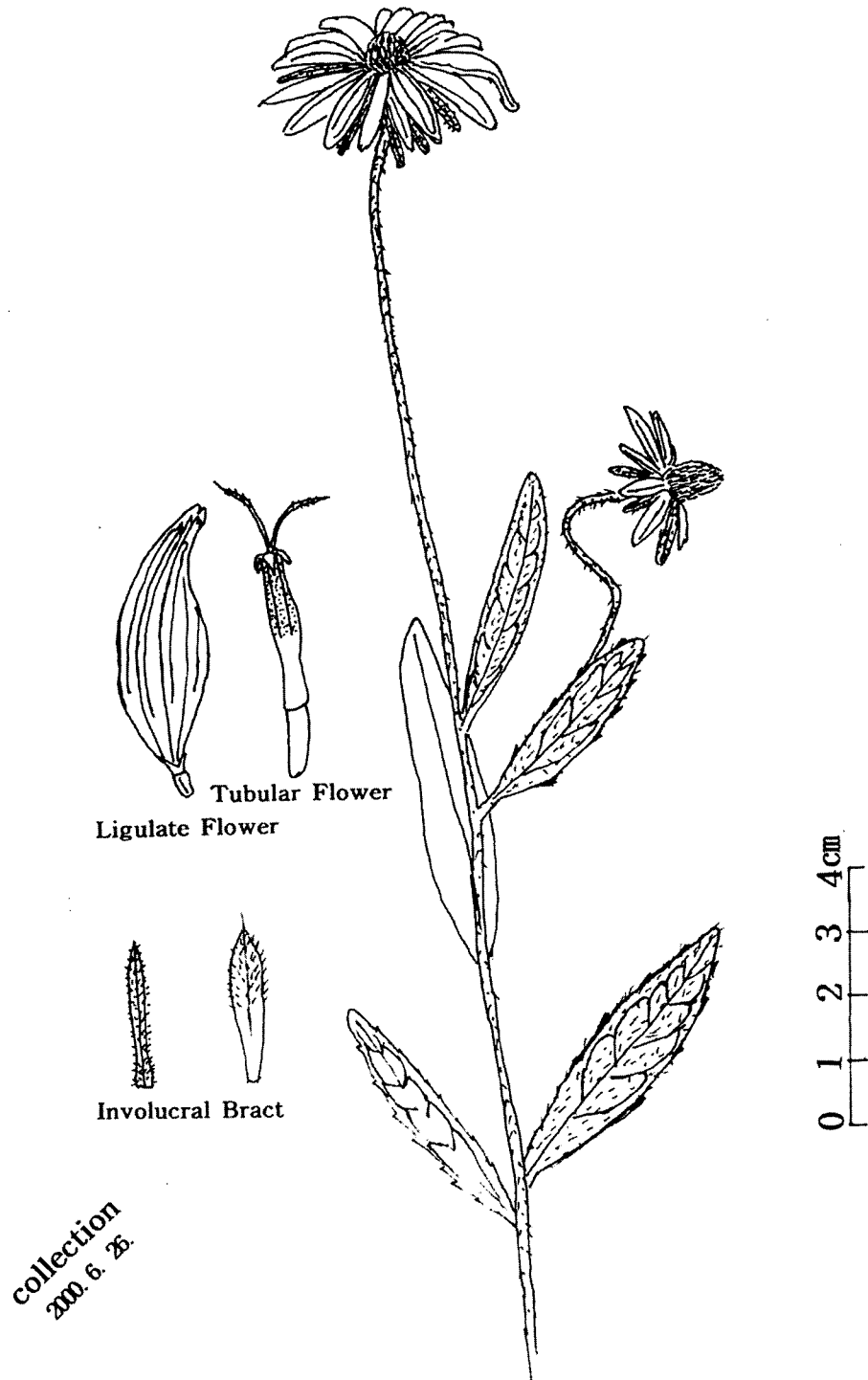


Fig.4. *Rudbeckia hirta*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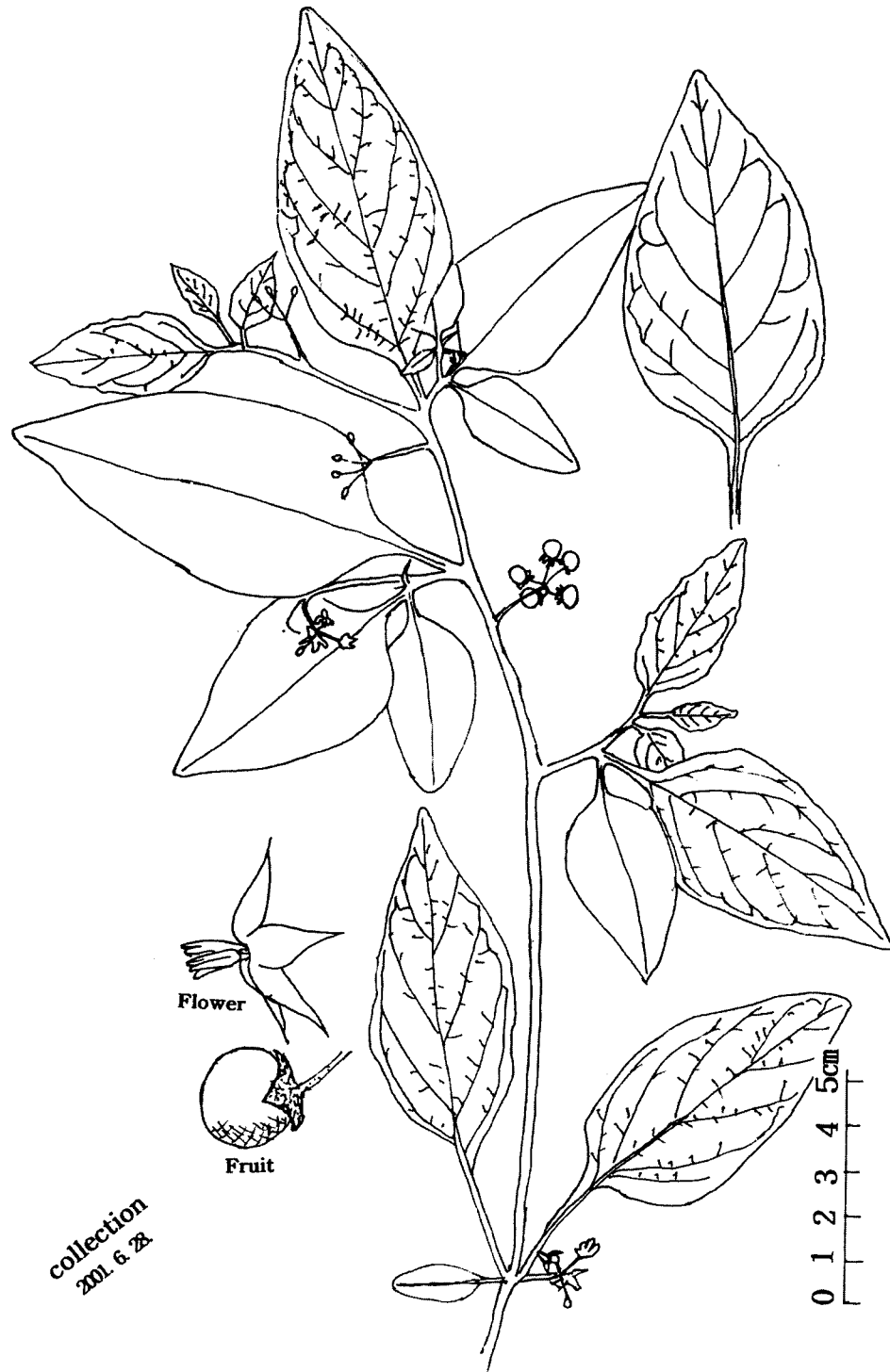


Fig.5. *Salanum photeinocarpum* Nakamura et Odashima